

## 가계의 부부간 재무관리 역할분담 형태분석

: 맞벌이 여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 은 화\*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과 소비자학전공 석사과정)

양 세 정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최근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자의 취업률은 3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통계청, 2003). 전통적인 부부 역할에서 남편이 소득을 창출하고,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체제와는 달리, 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소득창출을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 맞벌이부부는 가계경제 운용에서 비맞벌이부부와는 다른 형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젊은 맞벌이 층에서 부부의 소득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돈을 각자가 관리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은경제연구소, 1993).

본 연구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있어서 부부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체계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재무관리행동을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고, 다시 재무관리수행을 ① 소득과 지출관리, ② 저축 및 투자관리, ③ 위험관리, ④ 신용관리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항목을 설정, 부부간 역할을 질문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에서 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설문지는 맞벌이 여부를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배부하여 총 57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AS-PC program을 사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거친 후, 기술통계, 카이검증, Anova,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재무관리행동들에서 부부가 비슷하게 참여하거나 또는 아내가 더 크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용카드 관련 부분에서는 부부가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벌이여부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에서의 부부간 역할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맞벌이가계 보다 맞벌이가계에서 아내의 의견이 더 높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로 관리하는 비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여타속성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재무관리행동에 있어서의 맞벌이여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맞벌이가계가 비교적 적은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는 '생활비지출 결정'과 '10만원이하 물품결정'에서 아내의 결정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좀더 분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업주부에 비해서 가사노동밀착형 지출인 이들 항목에서 취업주부에 의한 결정력이 비취업주부가계보다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맞벌이가계일 경우 비 맞벌이가계에 비해 '대출유형 결정', '대출금액 결정', '값는방법 결정', '금융기관 대출관련 결정' 등 신용관리영역에 있어서 아내의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재무관리행동에서 부부 중 재무관련 관심이나 지식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재무관리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